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정화	학번	
이메일	Jasmine202913@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Syracuse Maxwell/EMPA	(국가) 미국
기 간	2020. 1. 13. ~ 2020. 12. 11.	[귀국일: 2020년 12월 1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일

신 청 인 : 이 정 화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기 후 : 눈이 많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5월까지 눈이 왔음. 첫눈은 할로윈 지나고 이틀 후 11월 초에 왔음. 1, 2월중에는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눈이 왔고, 광주에 있어 겨울에 눈을 많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시라큐스에서 지내면서 평생볼 눈을 보고 왔음. 눈이 많이 오는 도시답게 재설 작업은 빠르고 완벽하게 함.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여름에 시원할거라 예상했지만 습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많이 더웠음.
- 지리적 위치 : 시라큐스는 일명 Up state 혹은 Central New York 이라 불림. 뉴욕시티에서 차량으로 약 5시간,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임.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차로 3시간 반, 버팔로는 3시간, 로체스터는 2시간 정도 걸리는 뉴욕주 위쪽에 위치하고 있음.
- 생활관련 : 외국인 친구와 생활을 하고 싶어 학교 기숙사를 알아봤고, 다행히도 대학원생도 기숙사 신청을 할 수 있어서 South campus 기숙사를 신청하여 생활할 수 있었음. 기숙사는 1인실, 2인실, 4인실이 있는데 대학원생은 2인실을 배정해줌. 복층식 주택 건물로 한 동에 8실이 있음. 학교에서 차량으로 10분,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으며, 기숙사 규모는 무척 큼. 2차 세계대전 때 군인 숙소로 사용하였던 것을 학교에서 매입했다고 함. 1월은 정규 학기가 아니라서 2인실을 혼자서 사용하였음. 가을학기에는 룸메이트와 같이 지냈으며, 대학원생으로 배정됨. 방은 각자 배정되고 부엌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함. 옆집 학생들도 대학원생으로 2동 정도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음. 기숙사 내 Goldstein Student Center가 있는데 집에서 5분거리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 빨래방, 휴게실, 컴퓨터실, 편의점 푸드 코트 그리고 기숙사 사무실이 있어 무척 편리 하였음. 3월중 갑작스러운 shut down으로 현지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학교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student center도 계속 운영하여 걱정없이 지낼 수 있었음. 또한 기숙사 주변은 시라큐스의 중산층 주택가로 조용하고 깨끗하며 안전 하였음. 도보로 약 10분정도 이동하면 마트, 학교 골프장, 소규모의 쇼핑센터가 있어 무척 편리 하였음. 기숙사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싱글이라면 학교 주변 신축 스튜디오와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웨스트코트쪽에는 렌트하우스가 모여 있음.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Nob hill 아파트도 괜찮음.
- 한인 마트는 Han's grocery market 이 한군데 있고 바로 옆에 한식당, 뚜레쥬르와 같이 있음. 아시아마켓이 있는데 이곳은 한인 마트보다 규모가 더 큼. 한인 식당은 학교 주변 1곳, 한인 마트 옆, 웨스트코트쪽 세군데 정도 있음. 쇼핑을 한다면 Destiny USA 라는 뉴욕주에서 제일 크고 미국내에서는 6번째로 큰 쇼핑몰이 있으며,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2시부터 7시까지 무료 셔틀을 운영함. South campus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가면 에리 블리바디 쪽에 대형 마트와 상점들

이 있음.

- 학교 셔틀 버스를 이용할 계획으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South campus 내 Zipcar가 세대 정도 있어서 필요할 때 마다 예약하여 사용하였는데 편리 했음. 특히, 봄과 여름에 학생들이 없어서 쉽게 이용하였음.
-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전미 행정대학원 1위 학교답게 교육의 질은 상당히 높았고 매우 만족스러웠음. 특히, 교수님들의 명성과 수업에 임하는 자세, 유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열정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음. KDI에서 외국 수업 과정을 이미 경험해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초반에 현지 영어에 적응하느라 생각보다 힘들었음. 매주 다양한 주제로 강연회와 세미나가 많이 개최되었고, 학생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자주 개최함. 3월 봄방학 이후 수업과 여름 학기 수업은 Zoom으로 진행 되었고 가을 학기는 Hybrid 식으로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했지만 Thanks giving day break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여 모든 수업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 시라큐스 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측에서 학생과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이 빠른점이라고 생각함. 봄방학 이후 첫다운이 되면서 학교에서 남은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하고 현지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야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학교측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메일로 안내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시라큐스에서 수강한 총 과목은 8과목이고, 봄학기 3개 여름학기 2개, 가을학기 3개를 수강하였음. 코어 과목은 총 3과목으로 Managerial Leadership, Policy Analysis, Master's Project임. KDI에서 MPM과정으로 이준수 교수님의 POM을 이미 수강하였기에 Managerial Leadership은 쉽게 할 수 있었고, Policy Analysis는 미시 경제학 과목으로 경제학을 미리 수강하지 않아서 개념 이해하는데 어려웠음. Master's Project는 논문 수업인데 Yilin Hou 교수님으로 주제 선정부터 논문 제출까지 세심하고 적극적이시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셨음. 보통은 봄학기 4과목, 5월 계절학기 1과목, 가을학기 3과목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도 이동이 제한적이라 여름학기에 수업을 들었었음. 여름 수업 2과목은 Negotiation과 Public Budgeting 수업을 수강했었는데 두 교수님이 각 분야에서 유명한 분으로 수업을 듣는 동안 영광이었고 많은걸 배울 수 있었음. Negotiation 수업은 7일 동안 9시부터 5시까지 수업했고 하루에 2개씩 협상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1:1, 그룹 협상을 진행하여 현지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음. Public Budgeting은 MPA 과정의 코어과목으로 8월 정규학기 시작전 미리 듣는 수업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고,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여 교수님이 녹화한 동영상을 미리 보고 2시간 실시간 수업 참여, 그룹 과제, 개인 과제, 중간고사 3주간 힘든 수업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고 가장 열심히 했던 수업이었음. 예산실 근무 경험으로 미국 예산 시스템이 궁금하여 들은 수업이었음. 미국 예산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수업은 적극 추천함. 또한, 가을 학기에 수강하였던 UN Organization 수업은 매 수업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였음. UN 산하 각 기구의 현직에 있는 분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특히 202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던 World Food Programme의 Director의 경험담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식량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WHO에 근무하고 있는 시라큐스 맥스웰 스쿨 졸업생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너무나 영광이었음. 매 시간 각 조직의 게스트들을 초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몰랐던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민해보고 나의 관심사와 통찰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오진 못했지만 나름 안전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함. 우선 7월경,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학기에 대면 수업을 한과목 이상 듣지 않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는 조치를 내린적이 있었는데,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즉각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론을 내고 학생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컸었음. 가을학기는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지만 시라큐스 대학교는 사전 많은 준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였음. 가을학기 시작 전 모든 학생들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기숙사생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비용은 무료였음. 학교 사이트 대쉬 보드에 실시간으로 확진자와 동선을 공개하였음. 학교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재설치 되었고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음.

10월중 코로나 시대 리더쉽과 관련하여 특별 세션이 열렸었는데 가을학기 Managerial Leadership 과목의 일부분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공공분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 약 1시간 반 동안 코로나가 주는 변화된 세상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데 불편하게만 생각했던 코로나가 어찌면 많이 달라질 앞으로의 변화에 공무원으로서 한발 앞서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세미나였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학생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고 정말 의미있는 세미나였음.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었음.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고 특이한 점은 학부생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점이 재미있었음.

시라큐스는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오는 것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시라큐스 현지인들이 말하길 갈수록 눈이 많이 안오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전보다 눈의 양과, 눈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날씨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음. 소도시이긴 하지만 소도시만의 장점들이 많은 도시임. 우선 렌트비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특히,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뉴욕시티가 심각할 때 시라큐스는 확진자가 그리 많지 않은 안전한 곳이었음.

전미 행정대학원 1위의 타이틀은 괜히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꼭 와서 느껴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음. 시라큐스 행정대학원 교수님들의 명성과 수업의 퀄리티, 학교의 지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학교 활동 등 제가 있었던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호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무탈하게 정말 잘 지내다 왔음. 학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시라큐스로 오셔야 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학교를 나간 시간은 6개월도 안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보여준 신뢰와 대처 능력 때문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음. 참고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시라큐스 로스쿨 출신임.

1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시라큐스를 고민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확신을 드릴 수 있음.

